

총의·헌신 '오수개 조형물' 제막 전통 옷칠 기반 기능성 소재 산업화

임실군, 오수개 가치 재조명·정체성 한층 강화... 반려문화도시 재도약

임실군이 오수개의 설화에 담긴 숭고한 총의 정신을 기리는 상징공간을 새롭게 조성하며, 반려문화 도시로의 정체성을 한층 강화했다.

군은 지난 24일, 임실군 오수면 원동산공원에서 '오수개 조형물 제막식'을 개최하고, 지역의 대표 설화인 오수개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생명존중과 헌신의 의미를 담은 오수개의 설화를 현대적으로 계승·확산하기 위해 오수반려문화도시 추진협의회(회장 심재석)와 오수개연구소(소장 양삼성)가 공동 주관해 마련됐다.

제막식은 기념촬영과 오수개 동요 소개를 시작으로, 내빈소개, 제막식,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오수개 조형물 소개 순으로 진행됐으며, 조형물 제작을 위해 지정 기부자인 윤신근 박사와 조형물 제작자인 정대현 전 서울 시립대 환경조각학과 교수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오수개 이야기는 고려시대 문인 최자 등의 문집 '보한집(補閑集)'에 기록된 '오수의견(獒犬)' 설화에서 비롯된다. 숲에 취해 잠든 주인을 구하기 위해



임실군은 지난 24일 오수면 원동산공원에서 '오수개 조형물 제막식'을 개최했다.

불길속을 수차례 오가며 자신의 목숨을 불에 뜨고 끌내 목숨을 다한 총견의 이야기는 단순한 미담을 넘어 생명과 생명사이의 가장 숭고한 유대와 책임을 상징한다.

특히, 주인 김개인이 반려견의 희생을 기리며 정성껏 장례를 치르고, 무덤앞에 꿇은 지팡이가 자라 거목이 되었다는 일화는 '개 오(獒)'와 '나무 수(樹)'를 따 '오수(獒樹)'라는 지명의 유래로 이어지며,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문화적 기반이 됐다. 해당 설화는 한때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수록될 정도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하며, 총성과 희생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번에 새롭게 조성된 오수개 조형물은 1978년에 건립된 동상의 노후화 문제를 개선하고 상징성과 역사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작됐다.

특히, 오수개의 가치를 기리기 위해 1억 원을 기부한 윤신근 박사의 뜻을 더하며 그 의미를 더했다.

조형물은 중앙의 오수개 형상을 중심으로 '유대감, 위기, 희생, 이별, 느티나무, 명맥'을 주제로 한 6개의 부조로 구성됐으며, 안내판을 통해 오수개 이야기와 교육적 메시지를 함께 전달하도록 설계됐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LIG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한국조선해양기재연구원, 협약

남원시가 전문화학자인 옷칠을 첨단 산업 소재로 전환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천연물 기반 기능성 소재 산업화를 본격 추진한다.

시는 지난 24일 시청에서 LIG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 한국조선해양기재연구원과 함께 무인이동체 적용 특수 기능성 소재 산업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천연자원 기반 소재의 산업 적용을 위해 공동 협력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남원시가 보유한 전통 문화자원인 옷칠(우루시울)을 기반으로 '원료 생산·기능성 검증·천연물 기반 기능성 소재 산업화산업 적용'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산업화 체계를 공동으로 구축을 위한 것으로, 초기 단계부터 수요기업과 시험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무인이동체 적용을 전제로 한 기술개발과 검증이 동시에 추진되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전략을 구체화한 것으로, 지역 특화자원을 기반으로 한 산업화라는 공동 목표 아래 참여기관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를 실행

/남원=김기두 기자



하기 위한 협업 구조를 구체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에 따라 남원시는 원료 생산 기반 조성을 추진하고, 참여 기관들은 기능성 소재의 적용 가능성 검토와 시험·검증을 통해 산업화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특히 옷칠의 내구성, 방수성, 방오성 등 특성을 활용한 기능성 소재의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협력해 나가고, 특히 옷칠의 내구성, 방수성, 방오성 등 특성을 활용한 기능성 소재 확대와 소재 표준화, 품질 관리 체계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연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기능성 소재의 활용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남원시, AI 기반 도로 안전관리 행정서비스 구축 본격화

남원시가 한국도로정보공사와 '2026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의 하나인 'AI기반 도로 안전관리 행정서비스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며, 지난 24일 시청 회의실에서 관련 공무원과 한국도로정보공사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사업은 드론영상상 AI, GPR(지표투과레이더)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도로 안전관리의 정밀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으로, 시는 위험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사업 전반을 총괄하며, 한국도로정보공사는 수행기관으로서 기술

적 실행을 담당하게 된다.

주요 사업은 △드론영상 데이터 기반 도로 안전관리 DB 구축 △AI 카메라를 활용한 안전관리 자동화 △GPR을 이용한 지반 침하 정밀탐사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 이를 통해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지반 상태까지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하고 과학적인 도로 유지관리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구체적인 사업 수행 방식과 기대효과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부서 간 협업 사항 및 실효성 있는 운영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남원시가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남원시는 지난 8일 2026년 하천·계곡구역 불법 점용시설 정비 TF 2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1차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행정조치와 추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3월 한 달간 실시한 1차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77건의 불법 점용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단계



별 행정처분을 추진한다.

특히 지적이 불분명한 구간은 정밀 측량을 의뢰해 건축물 등 시설물 위치를 명확히 파악하고, 불법행위자가 특

정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오는 30일까지 공사중단 공고를 거쳐 행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번 정비는 사전 계도와 자진 철거를 원칙으로 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률에 따라 과징금·과태료 부과와 함께 행정대집행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행정도 강화하고 지난 21일 이성호 부시장은 직접 불법 점용 의심 지역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시는 오는 6월 2차 전수조사와 7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이어가며, 불법 점용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신축 순항

순창군이 추진 중인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신축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며 지역 미래산업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업은 순창읍 백산리 일원에 총사업비 약 150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5,350㎡ 규모의 지상 4층 건물로 조성되는 것으로, 제조시설과 연구공간, 기업지원시설, 판매공간 등을 갖춘 복합

산업지원 거점 역할을 할 계획이다.

특히, 다양한 규모의 기업 입주 가능성이 있도록 공간을 유연하게 설계하여 창업 초기 기업부터 성장 단계 기업까지 폭넓게 수용할 수 있으며, 초기 투자 부담이 큰 유망기업들에게 부담이 적은 '공공임대형'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지식기반·정



보통신 분야 기업이 한 공간에 입주할 수 있는 집적형 산업시설로, 창업부터 연구개발, 제품 생산, 사업화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한 지원하는 기업 성장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2027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수요조사

임실군이 탄소중립 실천과 군민의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2027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주택, 건물 등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두 종류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 설비를 설치해 전기와 열을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이번 수요조사 대상은 태양광, 태양

열, 지열 등 재생에너지원 설비 설치에 희망하는 임실군 주택 및 건물 소유자로 공모사업 최종선정 후 융복합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전체 설치비의 약 70~80%를 국비와 군비로 지원받게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오는 5월 22일까지 신청서 및 건축물대장 등 신청서류를 구비해 거주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전주매일 캠페인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행정직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통루(廣通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일면 5칸·열면 4칸이며, 지붕은 열면에서 볼 때 이집탈(A)과 모양을 한 팔각기둥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돌리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열어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질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열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누마루와 난간을 돌리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초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투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적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